

## 올림픽 通信 支援

李 相 福

韓國電氣通信公社 올림픽計劃部長

### I. 통신의 중요성

인간 생활에 있어 개인 상호간 또는 사회 계층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의사 소통이다.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우리 인간은 의사전달 수단으로 통신 시설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1837년 그라함벨이 전화를 발명한 이래 오늘날에는 우주 공간뿐만 아니라 빛마저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소시킴으로써 통신이 우리 인류의 문화 생활 향상에 높은 비중을 차지함은 물론 정치, 경제, 국방, 산업들의 발전에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편 지금으로부터 약 백여년전인 1855년 한성-제물포간에 개통된 전신으로 비롯된 우리 나라의 전기통신은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통치와 동족 상잔으로 인한 전국토의 폐허라는 악조건이 계속된 가운데서도 발전의 터전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신장하기 시작한 우리 국력이 그 밑바탕이 되고 있음으로 20여년에 불과한 실정이나 이제는 안방에서 세계 도처로 직접 호출할 수 있는 국제통화의 전 자동화와 더불어 지구 저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건을 비롯한 운동 경기를 TV화면을 통하여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 시대에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통신은 수출 산업에도 한몫을 단단히 해내고 있음은 물론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으로 탈바꿈 하겠끔 되었습니다.

### II. 올림픽 통신 지원의 의의

'86 제 10회 아시안 게임과 '88 제 24회 올림픽 대회를 우리 나라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양 대회의 준비에도 전력 투구하여 주최국으로써의

면모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대회때 보다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첨단 시설을 이용하여 질서있고 알찬 모범 경기가 진행되도록 하고 양 대회를 계기로 국제 사회에 우리들의 완숙된 모습을 투영시켜 선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지도 돌아오는 1988년에는 스물네번째가 되지만 대회를 개최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개국에 불과하며 아세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한 개최국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선진화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 나라이긴 하지만 개발도상국으로써는 세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 우리 나라에서 또 다시 이와같은 범 세계 대회가 개최될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IOC 회원국이 150개국을 넘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보면, 아마도 우리의 생존 기간 동안에는 아니 적어도 향후 1세기내에는 개최가 어려울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회 유치가 어려웠던 만큼 대회 준비에도 전력하여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통신이듯이 올림픽 대회의 승패도 두말할 것 없이 통신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4년후로 닥쳐온 1988년에는 세계 46억 인구가 우리나라로부터의 올림픽 경기를 우리들이 준비한 통신 시설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TV를 시청할 것이고 보면 올림픽대회 운영에 직접 지원되는 통신 시설은 물론 대회를 직접 관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사용하게 될 일반 통신 시설을 포함한 올림픽 통신의 사명이야말로 아무리 그 중요성

을 강조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림픽을 직, 간접으로 지원하는 올림픽 통신이야말로 그 어느 시설보다 더욱 더 책임을 통감하고 준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Ⅲ. 올림픽 통신 지원 기본 구상

저희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는 다섯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으로 세계 첨단 기술의 통신 시설과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 보급하는 등 기술 선진화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기초로 하여 올림픽 통신의 중요성을 감안 아래 몇 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져 합니다.

첫째, 올림픽이 필요로 하는 모든 통신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림픽이 필요로 하는 통신이란 대회를 주관하는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대회 운영통신과 경기실황을 전 세계 46억 시청자에게 직, 간접으로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방송과 신문의 자료를 송고하기 위한 보도 통신 그리고 대회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찾는 관객들이 이용하게 될 일반 통신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대회시 내한하는 각국의 VIP를 비롯한 임원진과 선수들의 신변 보호와 경기 개최지의 각종 재난 예방 및 부상자들에 대한 긴급 구호 활동을 위한 안전 통신을 총 망라하는 것입니다.

이들 통신은 시설 그 자체보다 짧은 기간에 대량의 통신 시설이 소요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참가국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탕으로 한 통신 수요 예측에 만전을 기하여 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선진국 수준의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통상 전기 통신이라고 하면 먼저 전화를 생각하겠습니까마는 어떠한 정보를 그 정보가 발생한 곳으로부터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어떤 장소에까지 전기적 수단에 의하여 전달 재현하는 모든 통신 수단을 의미하므로 전신 전화 뿐만 아니라 TV의 신호 전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의 전송 매체 등 우편을 제외한 일체의 통신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통신 시설이 시설면에서는 최상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여 우수 상품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하는 반면 운용면에서는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자기의 모국이나 기타 다른 외국에서 이미 사용한 적이 있는 서비스나 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 공급함은 물론 기술 수준 향상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원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5,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병행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 시책에 부응하면서 낭비없고 알찬 통신 지원이 되도록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토록함은 물론 기존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시공되는 시설을 조기 완공토록 하여 대회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부득이 하여 대회 전용으로 신규로 투자를 해야할 경우에는 대회 종료 후 재활용도를 감안 추진토록 하여 대회를 계기로 하여 명실상부하게 국의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하며 또한 아세안 게임도 올림픽 대회 못지 않게 우리로써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 지원할 시설은 가능한 아세안 게임에도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부 시설을 추가하여 올림픽에 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양 대회 통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사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코져 합니다.

준비단계, 계획단계, 건설단계, 운영단계, 정리단계의 다섯단계로 구분하고 먼저 준비단계인 지난해 말까지는 우선 대회 통신 지원의 근간이 되는 기본 방침을 확정한 바 있으며, 계획 단계인 금년 말까지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완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설 단계인 내년부터 87년 말까지는 소요 시설을 각 대회별로 건설해서 86년과 88년에 각각 양 대회의 소요 시설을 지원 운영토록 할 예정이며 대회가 끝나면 시설을 재 배치하는 등 사후 종합보고 순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Ⅳ. 올림픽 통신 지원 추진계획

이러한 기본 방침 아래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는 양 대회 경기가 개최되는 각 경기장을 비롯한 대회조직위원회와 각 관련 기관등에는 전자식 가입 전화를 비롯한 가입 전신을 공급하며 시내외 및 국제자동전화(ISD)가 가능한 공중 전화를 공급하여 대회 운영요원은 물론 일반 관람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국내외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위원회, 국제방송센터와 각 경기장간에는 직통 전화, 테렉스, 팩시밀리, 사진 전송기를 공급하여 대회 운영이 모두 컴퓨터에 의한 전산 처리가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방송 보도의 신속,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장 - 관할 전화국 - 국제방송센터 - 위성지구국(금산, 보은)간에는 광통신 케이블을 개설하며 특히 국제텔레비전센터에서 위성지구국까지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광통신 시스템과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으로 이원화하여 전송로 수단에 대처할 것이며, 86년에는

국제 텔레비전 4 회선을 포함한 국내의 텔레비전 38 회선을 공급하고 88년에는 국제 텔레비전 12 회선, CCTV 18 회선을 포함한 국내의 텔레비전 86 회선을 공급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각국에 인도양 및 태평양 인공위성을 경유하여 텔레비전을 통한 경기 실황을 직접 중계하는 시설을 구비하여 올림픽 유치국으로서 국제적 위치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도 86년도에는 7백43 회선을, 88년도에는 4천4백 20 회선을 공급하여 전국 어느 경기장에서도 세계 각국에 실황 중계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내 가입 전화 시설은 86년 말까지는 전화 적체를 완전히 해소시키고 10호 이상의 자연 부락까지도 전화가 가설되며 전국의 모든 전화가 자동화됨으로써 올림픽에 참가하는 관람객들은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도 시내의 전화는 물론 국제 통화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통신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84년부터 새로이 공급하는 교환기는 전자식으로 전량 공급하여 각 지역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며, 특히 도시와 떨어진 농어촌 지역에는 최신식 전자교환기를 공급 할 것입니다.

한편 선박 통신, 항공통신, 열차통신은 물론 자동차 자동 전화, 무선 호출 서비스 등, 편리하고 다양한 각종의 통신 서비스가 전국에 보급되어 일상 국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올림픽 통신 지원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중계 전송 계통 및 통신 지원 규모는 그림 및 도표와 같습니다.

• 통신 지원의 규모

(단위 : 회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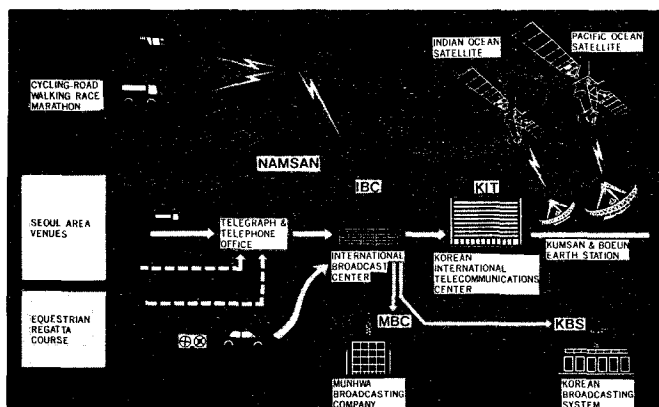
대회별	시설별	계	대회운영용	보도용	공중용
'86	계	20,613	12,768	5,102	2,743
	전 화	13,270	8,149	2,709	2,412
	전 신	260	93	52	115
	전 용 회 선	3,172	2,256	760	156
	라 디 오	7,743		743	
	T V	38		38	
'88	이통체통신	3,130	2,270	800	60
	계	39,298	20,836	14,865	3,597
	전 화	23,211	14,242	5,951	3,018
	전 신	440	83	144	213
	전 용 회 선	5,790	2,515	2,969	306
	라 디 오	4,420		4,420	
TV 및 CATV	86			86	
	이통체통신	5,351	3,996	1,295	60

V. 결 론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86, '88 양대회는 국가적인 대사업으로 우리 모두의 입장에서 대회 준비에 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역대 대회가 통신 지원의 정도에 따라 대회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입니다.

날로 바뀌어 가고 있는 통신 시설에 힘입어 올림픽에 지원되는 통신 시설도 대회의 회수를 더해 갈수록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등, 통신 올림픽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84 LA대회는 각종 통신 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EMS(electronic messaging system)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과히 세계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24회 '88 서울올림픽대회에도 우리의 기술을 총 집결하여 선진 한국의 통신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RADIO & TV TRANSMISSION PLAN

\*